올 사고 292건 … 14명 사망·288명 부상

"멈추겠지" "피하겠지"… 참변

착한 운전 사고 제로

③ 아찔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1위 도시'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주지역에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결여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292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2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1건(사망 15명, 부상 292건)에 비해 3%(9건) 감소한 것이지만, 올 전체 교통사고 4천301건(사망 64명, 부상 6천805건)의 6.7%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3천869건(사망 62명, 부상자 6천386명)이었다.

이처럼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의식 결여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고령화 추세속에 지난 2000년 이후 노인들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서

오치동 치안센터 등 광주 13곳 사고다발 노인 사고 특히 많아

구 풍암동 D아파트 앞길에서 무단횡단 하던 김모(여·84)씨가 이모(45)씨의 1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등 올 들어서만 5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홍보와 교통안전교육 강화,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이 절실한 이유다.

광주경찰청이 최근 3년간 반경 300m 이내에서 4건 이상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북구 오치 치안센터 등 모두 1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3년 동안 광주의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건수 132건의 6.8%에 달하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나 화물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는 여전한 만큼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과 함께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천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천881건에 비해 4.4%(350건) 증가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156.4대로 전국 평균(105.7대)을 크게 웃돌며 '교통사고 1위'를 기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진도군수 직무정지

광주지법, 징역 3년·집유 '직위상실형'

인사 청탁과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61) 진도군수에 대해 법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9일 인사 및 공사비리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곧바로 직무집행이 정지돼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군수는 청렴과 도덕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잊고 집행·인사권을 축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범죄횟수와 뇌물 액수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지만 30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박모(7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돈을 주고 '홍주 체험관' 공사를 따낸 문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인사청탁과 함께 박 군수에게 돈을 건넨 진도 공무원 3명은 700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 군수는 2006년 8월 진도군수 관사에서 전시물 설치업체 대표인 문씨로부터 '홍주체험관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공사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군수에 대해 징위상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민선 4기 지자체장들의 행정신뢰도와 공직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또 전남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행정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지자체장은 박 군수를 비롯, 이정섭 담양군수, 조형래 곡성군수, 신정훈 나주시장 등 모두 4명으로, 이미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중도하차한 경우까지 합하면 10명에 이른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셈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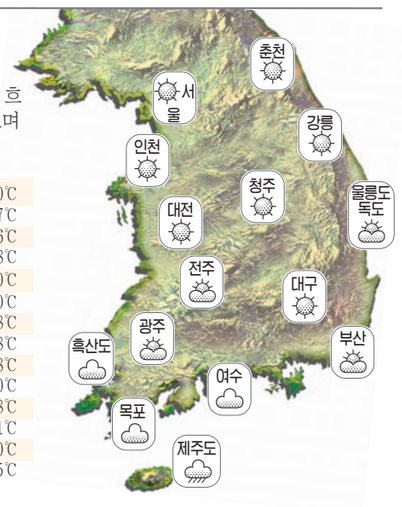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6분 해짐 19시 49분 / 달뜸 21시 30분 달짐 07시 48분

강풍 주의하세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구름 낀 곳이 많겠으며 강한 돌풍이 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2/30℃
목 포	흐림	21/27℃
여 수	흐림	23/26℃
완 도	흐림	22/28℃
구 례	흐림	22/30℃
해 남	흐림	22/30℃
장 흥	흐림	22/28℃
고 흥	흐림	23/28℃
순 천	흐림	22/28℃
영 광	구름 많음	21/30℃
진 도	흐림	22/28℃
전 주	구름 많음	21/31℃
남 원	구름 많음	21/30℃
흑산도	흐림	20/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먼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4:05 15:54	09:18 21:11
여수	10:34 23:07	04:42 16: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날 씨						
최저/최고	22/28	22/27	23/29	23/29	22/27	22/30

보험·병원 '상생 협약'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광주·전남도회는 9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현대해상 대강당에서 '상생 협약식 및 공동 워크샵'을 갖고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과 자동차보험 보상 환경 개선 등을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운초 前 북구의장 의원직 상실

大法, 징역 10월 확정

대법원은 9일 의장선거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부인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최운초(64) 전 광주 북구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 주모(56)씨에게 총 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여러 계좌를 거쳐 복잡한 방법으로 돈을 준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의장 선거와 관련된 청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홧김에 폭행 치사 구청 공무원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9일 같은 산악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광주 모 구청 직원 M(56·행정 6급)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5일 밤 11시5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병원 앞에서 같은 산악회원 A(60)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7일 오전 숨졌다.

목격자 J(40)씨는 경찰에서 "M씨와 A씨가 다투며 실랑이 끝에 M씨가 A씨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던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종행 기자 golee@